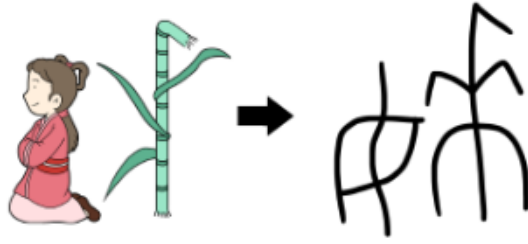


회의문자 ①



姉

손윗누이
자

姉자는 '윗누이'나 '맏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본래 '누나'를 뜻하던 글자로는 姊(윗누이 자)자가 있었고 姉자는 속자(俗字)에 불과했었다. 姉자에 쓰인 𠂔(꺾일 자)자는 풀이 올라오다가 꺾인 것을 그린 것으로 '저지되다'라는 뜻이 있다. 고대 중국에서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을 낳으려 했다. 그래서 姉자는 딸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풀이 꺾인 모습을 응용해 만들어졌었다. 하지만 지금은 속자였던 姉자가 '윗누이'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姊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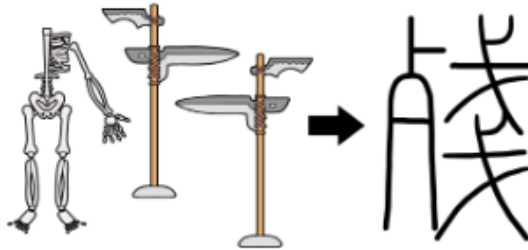
姉

소전

姉

해서

회의문자 ①



殘

남을 잔

殘자는 '잔인하다'나 '해치다', '멸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殘자는 歹(뼈 알)자와 戔(해칠 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戔자는 '창'을 뜻하는 戈(창 과)자를 겹쳐 그린 것으로 '해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창을 겹쳐 그린 戔자와 부서진 뼈를 뜻하는 歹자가 결합한 殘자는 창으로 뼈조각을 들썩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미 죽은 사람의 뼈를 창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으니 잔인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殘자는 '잔인하다'라는 뜻 외에도 '흉악하다'나 '해치다', '멸하다'와 같은 다양한 뜻이 파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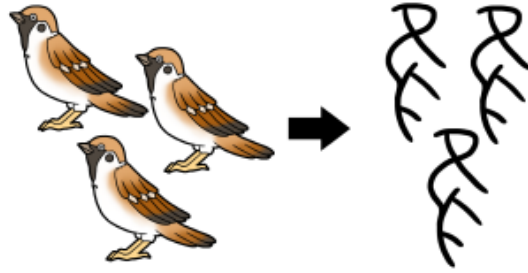
殘

소전

殘

해서

회의문자①



雜

섞일 잡

雜자는 '섞이다'나 '뒤섞이다', '어수선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雜자의 생성과정은 다소 복잡하다. 지금의 雜자는 隹(모일 집)자와 衣(옷 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雜자의 갑골문을 보면 단순히 3마리의 새만이 ^衣 그려져 있었다.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隹(떼 지어 모일 잡)자가 바로 雜자의 초기 모습이었다. 隹자는 색이나 품종이 다른 여러 마리의 새가 뒤섞여 있다는 의미에서 '뒤섞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후에 글자가 변하면서 '모이다'라는 뜻을 가진 隹자와 衣자가 결합한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衣자가 쓰인 것은 雜자가 한때 여러 색이 뒤섞여 있는 '옷'을 뜻했었기 때문이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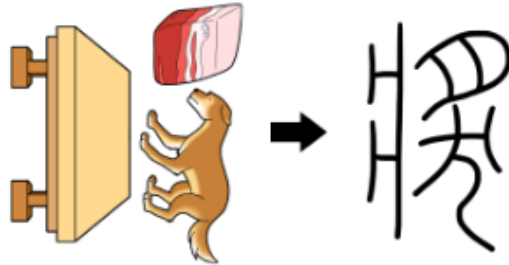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獎

장려할
장(·)

獎자는 '권장하다'나 '장려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獎자는 大(큰 대)자와 將(장차 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獎자는 冫(나뭇조각 장)자에 月(육달 월)자와 寸(마디 촌)자, 犬(개 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이것은 평상 위에 있는 개에게 고기를 던져주는 모습이다. 이것이 '장려하다'와는 무슨 관계인 것일까? 사실 獎자는 개에게 고기를 주는 모습으로 그려져 '(고기를) 먹도록 하다' 즉 '권하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이다. 이러한 뜻이 확대되어 '권장하다'나 '장려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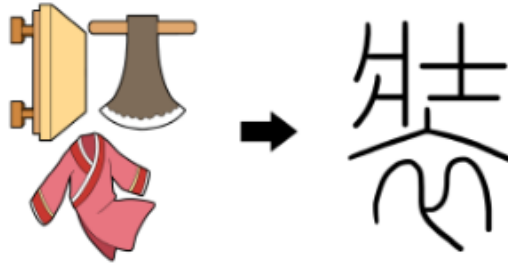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裝

꾸밀 장

裝자는 '꾸미다'나 '치장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裝자는 壯(장할 장)자와 衣(옷 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壯자는 탁자 위에 士(선비 사)자가 그려진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화장대로 응용되었다. 裝자는 외출 전 옷을 입고 화장대에 앉아 치장한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壯자와 衣자를 결합한 글자이다. 그래서 裝자는 '꾸미다'나 '치장하다'를 뜻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떠한 것에 임하기 전에 준비한다는 뜻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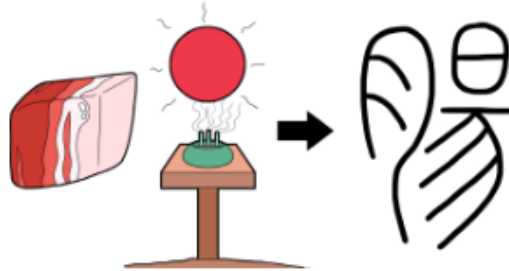
裝

소전

裝

해서

회의문자 ①



腸

창자 장

腸자는 '창자'나 '충심'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腸자는 月(육달 월)자와 腸(별 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腸자는 햇별이 제단을 내리찍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소전에서의 腸자는 마치 햇별이 대지 아래로 퍼지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다. 腸자는 이러한 모습을 응용한 글자로 음식물이 창자를 거쳐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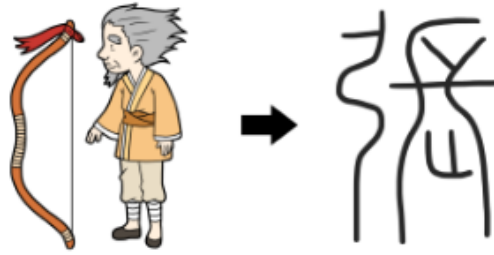
소전

腸

해서

4
-
157

회의문자①



張

베풀 장

張자는 '베풀다'나 '넓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張자는 弓(활 궁)자와 長(길 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長자는 머리가 긴 노인을 그린 것으로 '길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길다'라는 뜻을 가진 長자에 弓자를 결합한 張자는 화살을 멀리 쏜다는 의미에서 '널리 퍼트리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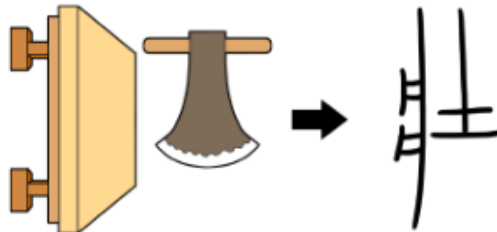
소전

張

해서

4
-
158

형성문자①



壯

장할 장:

壯자는 '씩씩하다'나 '굳세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壯자는 甹(나뭇조각 장)자와 士(선비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甹자는 나무의 한쪽 면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士자는 고대 형관들이 지니고 다니던 무기를 그린 것으로 '선비'나 '사내'라는 뜻을 갖고 있다. 壯자는 '사내'라는 뜻을 가진 士자의 의미를 확대한 것으로 '굳세다'를 뜻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고대 중국에서는 壯자가 당차고 인품이 훌륭한 남자를 뜻했다. 그래서 30살 이후의 남자들은 장년(壯年)이라 불렀었다.

壯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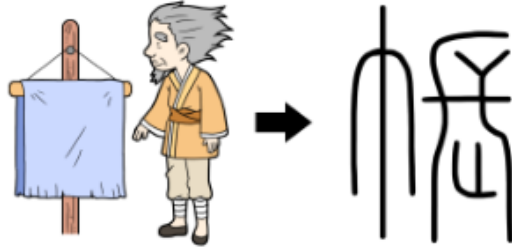
壯

소전

壯

해서

회의문자 ①



帳

장막 장

帳자는 '장막'이나 '천막', '휘장'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帳자는 巾(수건 건)자와 長(길 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長자는 '길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길다'라는 뜻을 가진 長자에 巾자가 결합한 帳자는 '길게 드리워진 천'이라는 뜻이다. 帳자는 본래 군대에서 쓰던 '군막'이나 '천막'을 뜻하던 글자였다. 고대에는 나무기둥에 긴 천을 둘러 임시 군영을 만들었는데, 여러 폭의 피륙을 이어 만든 장막이라 하여 이것을 '휘장(揮帳)'이라고도 했다. 워낙 긴 천을 뜻하다 보니 '장부'와 같이 긴 내용이 적힌 서적이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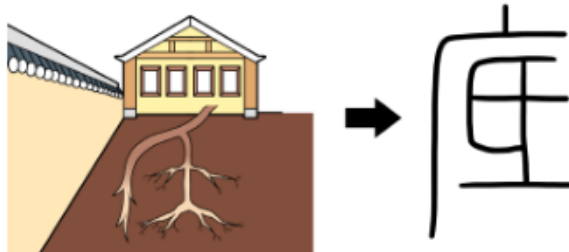
帳

소전

帳

해서

회의문자 ①



底

밑 저:

底자는 '밑'이나 '바닥'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底자는 广(집 엄)자와 氐(근본 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氐자는 땅속 깊이 뿌리가 뻗어 나간 모습을 그린 것으로 '근본'이나 '낮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낮다'라는 뜻을 가진 氐자에 广자가 결합한 底자는 건축물의 가장 아래쪽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底자는 본래 건축물의 가장 아랫부분인 '바닥'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지금의 底자는 단순한 의미에서의 '아래'나 '바닥'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底

소전

底

해서